

일주분



BBS 9월 다보법회 설법
도문 서울 대성사 주지는 26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열리는 다보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신라문화원 초청법회
성타 불국사 주지는 26일 오후 7시 서라벌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신라문화원 초청 대법회에서 법문한다.



평등 지문위원 위촉
성초 전 진각종 통리원장은 13일 타워호텔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의에서 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대전 파라미터 지부장에
장국 공주 감사 주지는 22일 오후 4시 백제불교문화회관에서 대전 파라미터 제2대 지부장에 취임한다.



인천 황룡사 기공법회
무원 권태종 황룡사 주지는 23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서 황룡사 기공식법회를 봉행한다.



가톨릭가 합창단 정기연주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은 15일 여의도 KBS홀에서 제4회 가톨릭가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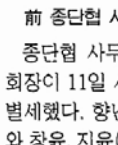
대영박물관장 초청 특강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은 2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로버트 앤더슨 대영박물관장을 초청 특강을 연다.



파라미터 월례세미나
이학승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청소년문화연구소장은 25일 오후 7시 중앙사우스에서 9월 월례세미나를 실시한다.



디지털법당 불상 점안
홍자은 청주 디지털 청소년상담실 지도법사는 8일 디지털 법당 흥덕사에서 불상점안법회를 봉행했다.



前 중대협 사무총장 한기상 씨 별세
중대협 사무총장을 역임한 백운당 한기상 회장이 11일 서울 순천향 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유족은 부인 문연옥씨와 장운, 지윤(불교방송 PD) 등 2남2녀.

“호남불교 중흥·화합 구현”

금산사 새 주지 평상 스님

“불교세가 취약한 지역불교 활성화에 진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14일 조계종 17교구 본사 금산사 산중총회에서 제12대 주지로 만장일치 추대된 평상(平相)스님은 “그 동안 전대 주지님들이 이뤄놓은 업적을 바탕으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말사주지 스님들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상스님은 1969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득도, 74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75년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금산사 재무국장, 안주 화암사 주지, 금산사 부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호법부장 사서실장, 11·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사 새 식구된 ‘백송 2세’

근래 들어 조계사가 인근 토지를 구입, 대웅전 앞마당을 넓히면서 토담 옆에 심은 어린 백송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백송은 조계사 신도가 최근 기증한 것으로, 대웅전 나무 밑에서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시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백송은 사연이 있다. 26년 전 조계사 신도인 대덕화 보살은 법회를 보고 나오다 대웅전 옆의 큰 백송에서 떨어진 솔방울을 가져다 화분에 심었다. 웅케도 16년간 화분에서 제법 자라자 집 앞마당에 옮겨 심었고, 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는 최근 조계사가 대웅전 앞마당을 넓히자 ‘절에서 얻은 인연 절로 회향한다’며 기증했다. 어린 백송은 5m 높이가 가지가 균형을 잃어 나뉘어 자랄 땐 생장기간이 평이다. 어미 백송은 수령이 약 550년에 높이 10m, 둘레 1.67m로 1962년 천년기념물 제9호로 지정된 조계사 터전대감이다. 백송은 수령이 많아지면서 회백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 조계사 교무 원평스님은 “어린 백송이 흰색을 띠 때쯤이면 조계사도 아름다운 도량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월드컵 겨냥 불교문화 홍보”

조계종 새 문화부장 정각 스님

“내년 월드컵 행사를 겨냥해 우리의 우수한 불교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으로 임명된 정각스님(울산 도솔암 주지)은 특히 지역 불교문화 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지 이외에는 한반도 행정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어깨가 무겁다는 정각 스님은 빠른 시간내에 업무를 파악해 효율적인 문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주위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불교를 일반인들에게 알릴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이지요. 불교문화 포교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 다른 종교와도 연계해 일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성보문화원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각 스님은 울산지역에서 산사음악회를 여는 등 그동안 문화 포교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스님은 9월말 땅속에 매장돼 있는 불교 문화재 조사를 위한 ‘지표조사팀’ 팀장으로 복원을 방문화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신행·불교문화 1번지 가꿀터”

10대 맞는 보현문화회관 오상현 관장



“보현불교문화회관이 생활 속의 신행도량,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일 보현불교문화회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오상현 관장(32, 선천)의 유지들이 이어 보현불교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오 관장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불신을 심는 것으로 회관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년제인 보현불교대학의 내실화와 함께 각종 교양강좌, 문화행사 등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문화회관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게 오 관장의 복안이다. 오 관장은 “초심자들에게는 발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자들에게는 외형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간직한 참된 수행자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실천하는 도량, 회향하는 도량으로 보현불교문화회관을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10주년 기념법회에서 ‘자비의 쌀’을 모아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한 것도 이러한 서연에서 비롯됐다. (042)624-6555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청소년 찬불가 만들어 보급”

파라미터 부산 청소년협 김석조 초대 회장



“청소년들이 불교를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교적 가치를 심어줄 것입니다.”
1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사)파라미터 부산청소년협회 초대 협회장에 취임한 김석조(부산시 부산진구 구의원·54) 회장은 “중등지회와 고등지회 회장과 뜻을

모아 부산 청소년 포교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회장이 드러내 놓고 불교계 일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 보현장학회 이사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비롯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실질적인 지원자로 알려져 오다 주변의 권유로 어렵게 용기를 낸 것. 김회장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우는데 힘을 보탬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한 자리”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불교TV 전직원 석불사서 수계식

불교텔레비전 이사장 성우스님은 13일 마포 석불사에서 직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성우스님은 법문을 통해 “계는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며,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등불”이라며 “근본적 자유로운 마음 속 번뇌의 소멸에서 온다”고 말했다. 직원 40여명은 수계를 받은 후 남을 헐뜯지 말고, 살생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등의 42가지 현성법을 지킬 것을 부처님 앞에 서약했다.

· 라선시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보내기



JTS 북한어린이 영양식 선적

JTS(이사장 법문스님)는 14일 부산항에서 북한 나선시 JTS공장에 보낼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인 쌀 24t, 분유 6t과 나선시 농업지원 2차분 요소 57t의 비료 선적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최경숙(미국JTS 이사), 황영숙(한국JTS 이사)씨를 비롯 부산 정토회 신도 10명이 참석했다. 미국JTS 최경숙 이사는 18일 나선시에 들어가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를 파악한 후 21일경 돌아올 계획이다.

중국 하남성·산시성 불교유적 순례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현대불교는 중국 선불교의 맥을 직접 느끼고자 중국 불교문화기행”을 기획해 하남성 지방의 고도 정주, 낙양, 등봉을 비롯해 예주, 원축 스님 등 신라 고승들의 발자취가 스며 있는 산시성 서안의 불교유적을 찾아간다.

중국 무술영화의 무대로 더욱 잘 알려진 소림사에서는 인도의 고승 보리달마가 9년간 면벽좌선을 통해 중국 선불교를 전파시켰던 역사의 흔적과 무술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 3대 석굴중의 하나인 용문 석굴에서 10만 여 불상들을 참배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에 저절로 탄성이 쏟아질 것입니다. 중국 최초 68년의 사찰인 백마사에서는 원나라 때 만들어진 중국의 국보 18나한상을 천천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시성 서안에서는 진시황릉인 병마유골을 비롯해 부처님 진신지출사리가 모셔진 법문사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는 양귀비의 자취가 어린 화창지 등을 둘러보게 됩니다. 또 북경에서는 천안문과 이화원, 만리장성 등도 답사합니다.

만리장성·소림사·용문석굴·법문사·병마유골

- ◇일정: 10월22일(월)~10월27일(토) 6박5일
◇참가비: 95만원(포함내역: 공항세, 비자비/단 여권수수비)는 별도
◇접수및문의: (02)333-8091(담당: 김지훈, 윤지영)
◇접수기간: 10월6일(토)까지(연계 소지자는 1주일 연장 가능)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출발시간과 집합 장소는 추후 공고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아주세계여행사

●후원: 중국하남여유집단유한공사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람 판매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의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음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 추동복: 촉감이 매우 좋고 땀이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누비: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람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장삼: 추동장삼으로서는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울을 더한 장삼.
◆ 가방: 이중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Table with columns: 스타일, 구분, 판매가. Lists prices for various items like 추동복, 누비, 장삼, etc.

※ 차이나,라운드,신도복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

지역판매점 모집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적인 제재를 받음

본사: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용 B/D 3F 302호
전화: 053-764-4114 H·P: 011-9850-4400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 세계불교도우의회 (W.F.B) 한국본부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02)864-8834-6 / FAX: 02)839-2185
(주)코리아붓다
인터넷: www.korea buddha.co.kr